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예배인도 : 신영균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부르심과 화답			
전 주		반 주 자	
예배로 부르심	시 95:6-7	인 도 자	
화 답 송		할렐루야찬양대	
기 원		인 도 자	
찬미와 고백			
† 찬양의 찬송	44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영광의 찬송	15	다 같 이	
말 씬 교 독	46. 시편 104편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임병일 집사 / 주영한 장로	1 부 / 2 부	
말 씬 선 포			
성 경 봉 독	롬 8:12-17(p. 249)	인 도 자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말 씬 선 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신 영 균 목 사	
결단의 기도		설 교 자	
감사와 봉헌			
응답의 찬송	620	다 같 이	
봉헌특별찬양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		
봉헌의 찬송	51(3)	다 같 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의 기도		인 도 자	
친교와 나눔			
친 교 의 인 사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파송과 축도			
† 파송의 찬송	54	다 같 이	
† 오늘의 위탁		인 도 자	
† 축 도		신 영 균 목 사	
†표시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순서입니다.			

오후찬양예배 · 수요기도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오 후 찬 양 예 배	수 요 기 도 회
인도 신영균 목사	인도 신영균 목사
찬송 179	찬송 365
기도 김춘식 집사	기도 송유진 집사
말씀 계 20:1-6(p.420)	말씀 딤후 3: 8-11(p.350)
설교 신영균 목사	봉독 남영아 권사
“천년동안 왕노릇 하리니”	설교 신영균 목사
	“디도서 강해”
찬송 175	찬송 215
광고 인도자	광고 인도자
축도 신영균 목사	주기도문 다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
욥 21:1-16	욥 21:17-34	요 11:1-57	욥 22:1-20	요 12:1-50	욥 22:18-30

다음 주 예배 담당 안내				
1부 기도	2부 기도	오후 기도	수요 기도	수요 성경
한동현 집사	정영석 장로	6구역헌신예배	조아영 집사	신순미 권사

예배 및 모임			교회력
구 분	시 간	장 소	예전색과 성서일과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시	예루살렘홀	1. 예전색갈: 초록색 2. 성서일과 ■ 시 104:1-9 ■ 욥 38:1-7 ■ 히 5:1-10 ■ 막 10:35-45
주 일 낮 1 부	주일 오전 8:30	예루살렘홀	
주 일 낮 2 부	주일 오전 11시	예루살렘홀	
오 후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홀	
수 요 기 도 회	수요 오후 7:00	예루살렘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9:30	각부서별장소	
청 년 부	주일 오후 2시	비 전 홀	
권찰제자훈련	금요 오전 10시	비 전 홀	

오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롬 8:12-17)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아빠]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고전15:10). 자신의 자아상을 바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1.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14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정체가 분명하고 은혜의 깨달음 속에 바른 실천의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롬 8:14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받은 거룩한 영, 거룩한 유전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이성도, 건강한 육체도 있습니다(요삼 1:2).

2.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로마서 8:15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죄의 자녀였지만(엡 2:1-3),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로 된 것입니다. 양자 삼아 호적에 올리면 그때부터 자녀입니다. 절대 은혜요 조건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곧 생활신앙입니다.

3.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8:17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도 얻지만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형벌이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고난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롬5:3-5).

(맺음) 성령으로 인도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의 말씀청취 : 포항기독교방송 FM91.5MHz (금요일 오전 5:35)

가장 아름다운 손										<김장환 큐티365>									
어떤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왕은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좋다는 약초를 바르고 때로는 향수도 뿌리며 열심히 관리한 사람들이 매일 왕궁 앞에 늘어섰지만 어떤 사람도 왕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몇 주 뒤 왕은 마침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의 눈에는 왕실을 거닐다 우연히 본 청소부 발발했던 주름이 가득한 손이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손이나 사람들의 말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땀과 수고, 성실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왕과 청소부」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을만한 외면을 가꾸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만한 내면을 가꾸십시오.																			
특별 봉 헌																			
십 일 조 감사헌금																			
학원선교 해외선교 점심대접																			
교회봉헌계좌																			
예 배 봉 사 담 당																			
찬양대지휘					김 현					찬 양 대 반 주					이슬기				
예 배 반 주					윤미애(1부, 오르간) 이슬기(2부) 송유진(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정보통신팀					김춘식 김동윤 신현준 최호섭 이강형 임은택														
안 내 봉 사 담 당																			
구 분					1부 예배					2부 예배									
안 내					서진석 박경순					김형일 박성미					이순태 이선희				
꽃 꾀 이 담 당																			
이번 주(10월 20일)										다음 주(10월 27일)									
정정희										이주혜									
교역자 및 장로																			
부 목 사										교육전도사									
협동목사										김영환									
원로장로										정인화 김영우 임태주 김정희 허상수 김승환									
은퇴장로										김성만 김은도 서태원 윤경록 장재영									
시무장로										김진한 김재성 주영한 정영석 정인석 김용출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교회봉사를 생활화합시다																			

■ 예배와 모임

- 10월은 찬양의 달이며, 오늘은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입니다.
- 오늘 낮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선교회(월례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예배인도:바울 선교회).
- 다음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제6구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오릉(五陵) 주차장에서 집결해서 베드로선교회 주최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개최하겠습니다. 저녁식사는 오후 5시 30분에 진미식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성찬예식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로 낮예배시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리상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뜻을 함께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3회 여장로 및 권사 세미나

경동노회 여장로·권사세미나가 24일(목) 오전 9시부터 안강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강사:대구수성교회 최경식 목사)

■ 협동목사 장인상

협동목사 김영환 목사님(이영미 사모)의 장인이신 이재일 장로님이 별세하셔서 지난 18일(금)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 성경 100독 대행진

26)정일자 사모

제55-42 [2024. 10. 20]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주여, 지류아게 아소서!

(창15:26, 사53:4-5, 살전5:23)

해외교회건축 및 선교후원단체

- 마나라에벤에셀교회 건축(필리핀)
- 흥륜교회 건축(중국 요양)
- 꾸와센르조교회 건축(인도네시아 스말랑)
- 문화중고등학교
- 포항CBS, 포항극동방송
- 경주YMCA
- 경주장애인전도협회
- 경주경찰서
- 중앙아프리카 어린이선교